

「학교 경제교육,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 개최

1. 토론회 개요

□ 8.27일 학교 경제교육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개선방안을 찾기 위하여 「학교 경제교육,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를 개최하였음

- 이날 토론회에는 전홍택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이 ‘학교 경제교육 내실화를 위한 제언’을 발제하고, 학계, 교육계, 경제·시민단체에서 토론자로 참석하여 학교 경제교육의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음

※ 토론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8.27(수) 15:00~17:00, 명동 은행회관

< 토론회 참석자 >

- 사회자 : 손정식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발표자 : 전홍택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 토론자 : 박영석 (경인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
장경호 (인하대 사회교육과 교수)
권영부 (서울 동북고 교사)
천희완 (서울 대영고 교사)
양세영 (전경련 사회협력본부장)
이대영 (경실련 사무총장)
김정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연구관리처장)

2. 주제발표내용 요약

[발표자: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학교 경제교육 내실화를 위한 제언」]

(1) 학교 경제교육 내실화 필요성

- 최근 세계화,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이 진행되면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제 패러다임의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개인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길러주는 경제교육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
- 올바르고 적절한 경제교육은 주어진 조건 하에서 개인이 정당한 방법으로 경제적 후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 경제 전체적으로도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음.
- 특히, 생애 가치관 형성에 중요한 시기인 아동·청소년기에 체계적인 경제교육을 통해 체득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은 국가 경제발전의 성장동력이 되는 중요한 인적자본임.

(2) 학교 경제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

가. 교육과정의 현황 및 문제점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에서 경제교육은 7~10학년(중1~고1) 기간 중에 배우게 되는데, 경제교육 시간의 비중은 낮은 상황
- 7~10학년 총수업 시간 중 경제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0.7%(=31/4,692), 사회과 수업 시간 중 경제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6.1%(=31/510)에 불과

<표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사회과목의 단원 구성 및 수업시간>

	지리		세계사		국사		일반사회				합계	
							정치, 법, 사회문화		경제			
	단원	시간	단원	시간	단원	시간	단원	시간	단원	시간	단원	시간
합계	13	133 (26.1)	9	88 (17.3)	16	168 (32.9)	9	90 (17.6)	3	31 (6.1)	50	510 (100)

주: ()안의 숫자는 백분율을 나타냄, 경제는 중3에서 21시간, 고1에서 10시간 배분

- 현재는 부족한 시간속에서도 중3에서 미시경제 개념을 학습하고, 고1에서 거시경제와 국제경제를 학습하고 있으나
 - 2011년부터는 중3에서 미시와 거시 경제단원을 함께 배우고 고1에서 문화, 정의, 인권, 세계화, 삶의 질 등 5개 주제에 대해 정치, 경제, 법, 문화를 통합적인 관점에서 교육할 계획
- 그러나 개정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은 문제점이 적지 않음.
 - 수업시간은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중3에서 미시경제영역뿐 아니라 거시경제영역까지 함께 학습하게 됨으로써 수업내용이 크게 부실해질 것으로 우려
 - 고1 과정의 주제중심 교육의 취지 즉 주어진 주제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조망해 보는 '통합적 사고능력을 배양'한다는 취지는 바람직하나, 고1 수준에서 통합적 사고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주제중심 교과서를 집필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임.
 - 통합 교육 방식의 교과서 개편은 전문가들에 의한 협업의 산물이어야만 가능할 것이며, 또한 주제에 따라서는 내용이나 가치가 서로 상충되는 분야까지 있어 이를 어떤 틀로 교과서에 담아낼 것인가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됨.
 - 주제중심 방식으로 가르칠 교사도 통합 학습에 많은 부담을 느낄 것으로 판단됨. 현재와 같은 교사 양성 체제로서는 통합 수업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기도 용이하지 않을 것임.

- 개별 주제의 학습에 있어서도 어떤 주제는 사전적으로 경제 지식과 이론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 이를 교사가 어떻게 조직하고 유기적 연계성을 갖고 가르칠 것인가도 커다란 과제
- 학생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주제 중심의 통합 교육은 중학교 3학년 까지 배운 일반사회, 지리, 역사 등의 교육 내용에 근거해서 어느 정도를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임.

(선택교육과정)

- 중·고등학교 수업시간 구성에서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선호에서도 경제 과목의 위상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사회과목 선택 현황을 보면 경제과목 선택은 총 9개의 사회과목 중에서 한국근현대사, 한국지리, 사회문화에 이어 4위
 - 경제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가르치는 고등학교는 2007년 현재 1,457개 학교 중 40%인 606개 학교에 불과

※ 해외 주요국의 경제교육 현황

- 미국은 21세기를 대비한 교육법(Education America Act, 1994)에서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학생들이 배워야 할 9개 핵심과목 중 하나로 경제학을 선정
 - 미 50개주 모두 경제학을 교육표준에 포함시키고, 특히 주요 17개 주는 경제과목을 고등학교 졸업을 위한 필수과목으로 규정
 - * California 주는 경제과목을 독립과목으로 분리하여 12학년에서 한학기 동안 교육
- 영국은 대학 진학을 위한 교육일반자격시험(GCE)의 Advanced Level과 중등교육일반자격시험(GCSE)에 Business, Applied Business, Economics 등의 과목을 포함
- 독일은 사회과목에 경제를 포함할 것인가는 주별, 학교 재량별로 다르나, Baden-Wuerttemberg주, Berlin주는 사회과목 중 독립과목으로 경제과목을 운영

나. 교원양성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 중·고등학교 경제교육 담당교사들의 전문성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중·고등학교에서 경제영역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출신 전공을 살펴보면 경제학과 비율이 겨우 5.9%(중학교) 및 10.6%(고등학교)에 불과하고,
 - 담당 교사들의 많은 수가 학부 재학시 관련 강좌를 전혀 수강하지 않았거나(중 11.0%, 고 3.7%) 겨우 1~2과목만 수강함(중 36.1%, 고 24.6%)

< 경제관련 과목(영역) 교사들의 출신학과(%) >

출신 학과별		중학교	고등학교
사범대	일반사회교육과	28.8	38.7
	공동사회교육과	3.3	2.6
	지리교육과	17.4	5.9
	역사교육과	15.1	3.1
	기타	4.1	7.6
교원대	일반사회교육과	1.8	1.6
	공동사회교육과	0.3	0.3
	지리교육과	0.5	0.1
일반대	경제학과	5.9	10.6
	비경제학과	15.3	17.3
교육대학원	일반사회전공	3.8	7.2
	공동사회전공	0.3	1.0
	지리전공	0.3	0.1
	역사전공	0.8	0.7
	기타	2.3	3.1
무응답		0.8	---
		총 391명	총 682명

- 경제담당 교사들에 대해 체계적인 재교육 기회도 상당히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음.
- 현행 수준에서는 사회과목 교사 연수 기회가 약 14년 되어야 겨우 한 번 가능한 정도임.
 - KDI, 자유기업원 등 연구기관, 경제5단체, 한은, JA-Korea, 소보원 등 공공 및 민간 기관이 실시하는 중등 사회과 교사대상 연수프로그램 이수인원은

연 1,860명 수준으로 중등학교 사회과 교사 25,000여명의 약 1/14에 불과.

※ **외국의 교사양성 현황**

- 외국의 경우 학부과정에서 많은 경제관련 과목을 수강하도록 요구하거나 경제교사 교육을 통해 교수들의 전문성이 강화되도록 노력
- 미 California 주의 경우, 경제수업 담당교사는 일반적인 교사자격요건 외에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였거나 20학점 이상 관련과목을 수강할 것을 요구

다. 교육성과의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의 경제 이해력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것으로 보임
- 한미일 3개국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제이해력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교생들은 55.7점을 얻어 미국의 61.2점, 일본의 57.3점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
- 또한 경제과목 수강 학생(57.7점)과 비수강 학생(54.7점) 간의 차이는 3.0점에 그치고 있어 중고등학교에서의 경제교육이 경제이해력을 증진시키는 데 별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함.

< 한미일 경제이해력 테스트 비교 >

한국			미국			일본		
수강자	비수강자	평균	수강자	비수강자	평균	수강자	비수강자	평균
57.7	54.7	55.7	64.3	47.6	61.2	57.2	57.7	57.3

(3) 학교 경제교육의 개선방안

가. 개정 교육과정의 문제점 개선

- 중3 교육과정에서는 현행 교육과정과 같이 미시경제영역만을 다루고 고1에서는 거시경제영역을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함.

- 고1 과정의 개정 교육과정은 주제중심의 통합적 접근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 교육과정과 같이 영역별 교육으로 환원하고 특별활동의 형태로 주제별 교육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는 방안이 바람직함.**
- 개정 교육과정 체계에 따른 **주제중심 통합교육을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시행하여 경제를 포함한 사회과 교육 전체의 내용적 혼란을 불러오는 것**보다는 **현행 교육과정을 유지하면서 통합교육을 부분적으로 시범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경제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수업시수 확보

-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의 **경제영역 수업 시간을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경제영역 수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함.
- 경제과목이 일반사회교육과 분리되지 못한 현 상황에서 수업시수를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회교과 내에서의 영역조정을 통해 수업시간 확보하는 방안 강구
- **부족한 수업시간을 보충할 수 있는 간접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 다른 과목 교사들이 경제적 사실과 경제 지식을 학습시킬 수 있는 **교재나 교수·학습법 등을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는 지원책**을 모색
 - 부족한 경제 수업은 **창의 재량 활동 시간을 최대한 활용**
- 보다 많은 고등학교가 **선택중심 교육과정에서 경제를 선택과목으로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근본적으로는 경제과목의 필수화가 필요함.**

다. 교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 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원양성 과정에서 경제학 소양 함양을 가능케 하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한편, 접근성, 주기성, 현장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한 교사 재교육을 활성화 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한편, 전국 중·고등학교 사회과 교사는 25,263명(수도권 11,705명, 지방 13,558명)임. 지방의 열악한 경제교육 환경을 고려할 때, 지방의 사회과 교사를 위한 전문성 강화 노력도 게을리 할 수 없음.
- 교사 연수프로그램의 대폭적인 증가는 현실적으로 방학 기간 중에 시행되어야 하므로 시간 및 예산 등의 제약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임.
- 따라서 사이버 연수 등을 통한 교육기회의 확대를 통해 예컨대 5년에 1회씩 경제 분야의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경제 과목별 교수 학습법 등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함으로써 교사의 학습지도 지원라. 장기적으로는 사회교과 내에서 독립된 과목으로 분리
- 교육과정의 시수구조, 타 교과와의 형평성 문제 등 단기적으로 현실화 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산재하고 있지만,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상 독립교과로 경제과목을 설치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임.
- 경제문제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이 목표인 경제 교육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학적 지식과 개념을 습득하고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기르는 훈련이 이루어져야 함.
 - 그러나 일반사회과는 시민으로서의 가치관 형성, 규범, 관습 등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기 때문에 경제교육의 목표와 상치되거나 불필요한 교육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큼.
- 경제영역의 분리시 경제담당 교사의 수요가 급증함으로 사범대에 경제 교육과 설치 등의 교원공급 증대 방안도 검토되어야 함.

마.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추진

- 2007년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정이 추진되었으나 17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바 있음. 금년 정기 국회에 경제교육 지원을 위한 법제정을 추진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갖춘 학교 경제교육 및 사회경제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범사회적 여건을 조성.

- 국민의 경제이해력 증진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경제교육 내용 정착을 위한 중요한 과제인 '경제이해력 인증시험의 도입·정착'과 '경제교육 표준개념 정립' 등을 법에 명시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함.